

## 韓國 『黃帝內經』 研究 略史

강연석<sup>1</sup> · 김남일<sup>2</sup> \*

<sup>1</sup>우석대학교 한의과대학 · <sup>2</sup>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

### A Brief History of Korea's Study of 『Internal Classic』

Kang Youn Suk<sup>1</sup> · Kim Nam Il<sup>2</sup>

<sup>1</sup>Univ. Usuk · <sup>2</sup>Univ. Kunghee

The practice of studying 『黃帝內經』 is one that is deeply rooted throughout Korean history. The main textbook used in educational institutions as early as the Era of the Three States, it was also actively examined. A doctor examination system was introduced in the Koryo dynasty, which reinforced 『Internal Classic』's status as an important subject of study. Following the nation-wide acceptance of Confucism, scholar-physicians came to be and this book was studied as an important scripture. By Chosun dynasty, the entire medical systems becomes centered around 『Internal Classic. Internal Classic is not only included in medical examination manual written in the period of Sejong's rein but was cited in many medical texts published during this time span including Euibangyoochi, Hyngyakjipseongbang, and thus can be seen as the conceptual basis of medicine. In late Chosun dynasty with the emergence of the Korean Traditional Medicine's scripture, The Treasured Mirror of Eastern Medicine, 『Internal Classic』 is spotlighted as a scripture of importance among medical families. Lee Kyu-Jun, a doctor of the Japanese occupation era, examined 『Internal Classic』 based on a theory called fuyang theory and produced a creative medical theory.

Key Words : Traditional Korean Medicine, Internal Classic

---

## 1. 서론

한국에서 『黃帝內經』이 교육되고 연구된 역사는 오

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 책에 대한 중요성이 그다지 강조되지 못하고 심지어 폄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근현대 이후로 지나치게 과학화의 논리에 치중하다보니 이와 같은 原典에 대한 연구는 경시되게 되는 풍조가 깊이 자리잡게 된 것이다.

최근 한국내에서는 기초이론에 대한 연구가 일신되어

---

\* 교신저자 : 김남일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의사학교실 02-961-0672  
E-mail : southkim@khu.ac.kr

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한의계에서는 의서에 대한 기왕의 빈약한 연구를 반성하고 미래의학으로 발전하기 위한 초석이 될 기초이론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 연구는 한국에서 고래로부터 중요하게 여겨졌던 原典인 『黃帝內經』이 한국에서 어떻게 교육되고 연구되었는가에 대한 개략적인 고찰이다. 시대별로 이 책이 어떻게 교육되어졌고 연구되어졌는가가 주 테마인 것이다.

본 연구가 바탕이 되어 앞으로 한국에서의 『黃帝內經』 연구의 역사가 정리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 2. 三國時代와 南北國時代의 『黃帝內經』 研究

三國時代는 高句麗, 百濟, 新羅의 三國이 세력을 다룬 時期로서 韓國의 古代에 속한다. 이 時期에 『黃帝內經』가 어떻게 研究되고 教育되었는지 具體的인 記錄이 나오지는 않지만, 몇가지 事實을 견주어 본다면 그 情況을 類推할 수 있다.

먼저, 구체적인 기록이 있다. 高句麗 平原王 3년(561년)에 中國 江南의 吳나라 사람 知聰이 內外典, 藥書, 明堂圖 등 164卷을 가지고 高句麗를 거쳐 日本에 귀화하였다는 『日本書紀』 欽明主 22년의 기록이다. 여기에서 內外典은 『黃帝內經』, 黃帝外經을 指稱하는 것으로서, 이로써 이 時期 高句麗에서는 『黃帝內經』가 중요한 醫書로 읽혔음을 알 수 있다.<sup>2)</sup>

둘째, 道敎와의 관련성이다. 道敎的 色彩가 강한 醫學者 葛洪이 지은 『肘後備急方』이 百濟의 醫書 『百濟新集方』에 인용되어 있는 것과 高句麗의 高분 벽화인 三山圖形, 神仙圖像 등에 보이는 道敎的 색채, 鍊金術, 煉丹術, 養生術 등에 대한 高구려의 우수성에 대한 기록 등이 그러한 것이다. 道敎的 色彩가 강한 『黃帝內經』는 어떤 형태로든 이러한 道敎적 영역에 구체적인 影響을 미쳤으며 일부에서는 醫學에 적극활용하였을 것이다.

셋째, 의료제도상 醫博士의 실체이다. 『日本書紀』 欽明主 14 (A.D.553년)의 기록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따로 칙을 받들어, 易博士 施德 王道良, 曆博士 固德 王保孫, 醫博士 奈率 王有凌陀, 採藥師 施德 蕃量 豐, 固德 丁有陀, 樂人 施德 三斤, 季德己麻次, 季德 進奴, 對德 進陀를 보내왔다.” 여기에서 奈率은 6품에 해당하는 백제의 관직이름이다. 易博士가 8품이었고 曆博士가 9품이었던 것에 비추어볼 때 醫博士는 품계 가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백제에서 의학 을 중요시하였다는 증거이다. 아울러 博士라는 호칭을 가지고 있는 醫博士는 높은 품계이기에 『黃帝內經』 같은 학술적 서적이 주로 연구와 教育에 사용되었을 것임에 틀림없다 할 것이다.

넷째, 南北國時代 新羅로 넘어오면서 설치된 “醫學” 이 라는 의학교육기관에서 『黃帝內經』를 교재로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三國史記』 職官志에 보면 孝昭王 元年(692년)에 醫學을 두어 博士 2인이 학생에게 『本草經』 『甲乙經』 『素問經』 『鍼經』 『脈經』 『明堂經』 『難經』 등을 가르치도록 하였다는 내용이 보인다. 여기에서 꼽히는 醫書들 중에 『素問經』과 『鍼經』은 『黃帝內經』를 구성하고 있는 두 개의 醫書로서, 이 기록은 구체적으로 內經이 교육된 증거가 된다.

## 3. 高麗時代 『黃帝內經』의 研究

高麗時代에는 內經의 教育이 중요시된 시기이다. 光宗이 醫學科擧制度를 958년(光宗 9년)에 後周의 귀화인 雙冀의 건의로 실시하게 되는데, 그 응시자격은 品官, 吏屬(품관이 아닌자로 중앙관직자), 鄉吏, 庶人 등으로 정하였고, 仁宗 3년(1125년)에는 兩大業은 5品, 醫卜地律算은 7品까지 허용하였고, 지조와 덕망이 있는 자는 4品까지 모든 科目에 응시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능력있고 학식있는 인물들이 醫學에 입문하게 되었다.

특히, 仁宗 14년(1136)에 醫業式과 呪禁式으로 구별하여 실시되었다. 응시과목은 新羅를 繼承하고 있다. 醫業은 여러 과목을 통달해야 하였으므로 쉽게 等第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과거 이외의 특전이나 軍功에

2) 상세한 내용은 맹웅재 외, 『韓醫學通史』, 대성의학사, 2006, 62쪽에 기록되어 있음.

의해 入土하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이 시기에 宋나라와 醫書 交流를 이루는데, 『太平聖惠方』(992년 간행)을 1017년 郭元, 1022년에는 韓祚가 송나라로부터 가져온 것이다.

역사에 기록되어야 할 사실이 있다. 宋나라 哲宗(1086-1099년)이 高麗에 醫書를 요청한 것이다. 『王方慶園亭草木疏』 27권, 『古今經驗方』 50권, 『張仲景方』 15권, 『深師方』, 『黃帝鍼經』 9권(宣宗 10년인 1093년에 黃宗愨을 시켜 보냄), 『九墟經』 9권, 『小品方』 12권, 『陶隱居效驗方』 6권, 『桐君藥錄』 2권, 『黃帝太素』 30권, 『名醫別錄』 3권 등이 그것으로 이 가운데 『黃帝鍼經』을 宋나라에 보내 현재 사

용되는 『靈樞』의 판본이 되기도 하였다.

이 시기에 나온 內經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안 보이지만, 이를 연구하였을 개연성이 있는 醫家로 몇 사람을 꼽을 수 있다. 이들은 학문연구에 매진할 수 있는 집안에서 태어나 의학연구로 이름을 떨친 인물들이다. 먼저 金永錫(1079-1166)이 있다. 江陵이 본관인 金永錫은 고려 중기에 儒學을 중시하는 문벌귀족의 집안에서 태어나 체계적인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하였다. 그가 당시 최고위직인 문하시중에 앉아 있었던 金仁存의 아들이었던 것을 감안할 때 그는 아마도 당시 최고의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하였을 것이다. 과거에 급제하면서 첨사부주부를 거쳐 합문지후, 전중내급사가 등

과목/시험방법	첩경(貼經)	독경(讀經)	파문(破文)	의리(義理)	합격(合格)
素問經	八條(初日)		(八條)	(八條)	六條以上
甲乙經	二條(初日)		(二條)	(二條)	
本草經	七條(翌日)		(七條)	(七條)	六條以上
明堂經	三條(翌日)		(三條)	(三條)	
脈經		十卷(翌日)	六机	(六机)	四机
鍼經		九卷(翌日)	六机	(六机)	四机
難經		一卷(翌日)			
灸經		二机(翌日)	(二机)		二机

표 1 의업(醫業)의 과목(科目)과 선발방법(選拔方法)<sup>1)</sup>

첩(貼): 책 중의 1행(行)을 보여 주고 가린 다음 전후를 통독(通讀)시키는 것.

파문(破文): 문의(文義)를 해석하는 것.

의리(義理):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

궤(机): 지금의 점수.

試驗方法 科目	貼 經	讀 經	破文兼義理	合 格
脈 經	十條(初日)		(十條)	六條以上
劉涓子方	十條(翼日)		(十條)	六條以上
癰疽論(小經) 明堂經		七卷(翼日) 三卷(翼日)	(十卷)	六機
針 經(大經)		十機(翼日)	(十機)	六機
七卷本草經		二機(翼日)	(二機)	二機

표 2 呪禁業의 科目과 選拔方法

의 관직을 두루 거치면서 실력을 인정받았고 1133년에는 낭중으로 金나라에 까지 다녀오게 되었다. 그는 평소에 儒學을 공부하는 여가로 醫術을 연마하여 백성들의 질병의 치료에도 많은 공헌을 하였다. 동로병마사를 세번 역임하고 북로원수를 한번 역임하면서 백성들의 신망이 두터웠던 것은 이러한 그의 의학적 능력과도 관련이 깊다.

다음으로 崔宗峻이 있다. 崔宗峻(생몰년대 미상)은 茶房이라는 관청에서 사용한 藥方들을 모아 긴요한 처방을 첨가하여 『御醫撮要方』 2권을 만든 醫人이다. 현재 최종준 개인 신상에 대한 어떠한 기록도 남아있지 않기에 그에 대해서 말할만한 것이 없지만, 아마도 궁중에서 활동한 武臣이었을 공산이 크다. 茶房은 애초에 국왕과 가까이 있을 수 있어서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관직이었기에, 초기에는 文官들이 독점하다가 武臣의 亂 이후에는 武官들이 독점하게 되었다. 시기적으로 고종 때는 무신난 이후이므로 최종준이 武臣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또한, 李奎報(1168년-1241년)가 있다. 고려 고종년간에 가장 유명한 지식인 이었던 그는 그의 저술 『東國李相國集』에 『禦醫撮要方』의 서문을 지었다. 『禦醫撮要方』은 1226년에 崔宗峻이 왕실에서 내려오던 처방들 중에서 긴요한 것들을 모아서 간행한 醫書이다. 『禦醫撮要方』은 최근 북한의 자강도 인민병원의 주규식 박사의 40여년간의 작업에 의해 복원된 유명한 의서이다. 주규식 박사는 『鄉藥集成方』, 『醫方類聚』에 나오는 『禦醫撮要方』 관련 내용들을 수집하여 이를 130여 조문으로 복원하였다. 李奎報가 지은 자작시에는 의약에 대한 기록들이 보이는데, 이것은 그가 평소부터 의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崔宗峻이 자신의 저술에 서문을 부탁하게 된 것도 평소부터 가졌던 의학에 대한 능력을 주변사람들이 인정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李奎報는 서문에서 의학의 중요성과 간편한 의서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신난, 몽고와의 전쟁 등을 겪으면서 당시 고려에서 시급하게 생각했던 바였던 것이다.

이들이 활동했던 시대는 중국의 宋金元時代에 해당하는데, 宋金元時代는 중국에서 儒醫들이 중심이 되어

內經을 바탕으로 醫學을 연구하여 新醫學을 창도한 연구자들이다. 고려시대는 中國의 宋金元時代와 같은 시기로서 이러한 학술적 조류는 같은 수준에서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 4. 朝鮮 初期의 內經研究

##### 1) 世宗大王代의 內經研究

世宗年間에는 의학이 권장되고 의서의 간행이 활발하여 의학이 크게 발전한 시기이다. 이에 따라 의학이론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져 內經研究가 활성화되었다. 이것은 몇가지로 알 수 있다.

첫째, 세종 12년 의학취재에 사용된 교재로 알 수 있다. 『直指脈』, 『纂圖脈』, 『直指方』, 『和劑方』, 『傷寒類要』, 『和劑指南』, 『醫方大成』, 『御藥院方』, 『濟生方』, 『濟生拔粹方』, 『雙鍾處士活人書』, 『衍義本草』, 『鄉藥集成方』, 『鍼灸經』, 『補註銅人經』, 『難經』, 『素問』, 『聖濟總錄』, 『危氏得效方』, 『寶氏全嬰』, 『婦人大全』, 『瑞竹堂方』, 『百一選方』, 『千金翼方』, 『牛馬方』 등 25종이 언급되고 있는데, 이 가운데 특히 『素問』, 『鍼灸經』 등 內經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통해 內經이 考試에 사용되어 의학을 공부하는 학생 뿐 아니라 일반 醫員들도 많이 활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둘째, 『醫方類聚』의 편찬(세종 27년)이다. 당시 우리나라에 전해 온 한의방서들을 유추하여 완성한 이 책은 『향약집성방』과 체제가 비슷(91大綱門)하나 病門이 더 세분되어 있다. 당시의 한의학 지식을 집대성한 백과대사전이다. 문종 원년경에 抄寫하고, 세조 5년부터 10년까지 교정 정리하였고, 성종 8년(1477년)에 30帙을 印進하였다. 이 책은 특히 內經의 문장을 온전하게 수록하고 있어서 한국 내경연구의 바탕을 마련한 것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셋째, 『鄉藥集成方』의 편집(세종 15년)이다. 이 책은 모든 병을 57大綱門으로 나누어 그 아래에 959조의 小目으로 분류하고 있는 종합 의서이다. 인용된 우리나라 의서는 『三和子鄉藥方』, 『本朝經驗方』,

『鄉藥簡易方』, 『鄉藥救急方』, 『鄉藥惠民經驗方』, 『禦醫撮要方』, 『東人經驗方』, 『鄉藥古方』, 『濟衆立效方』 등인데, 특히 내경의 내용이 다양하게 논리의 흐름을 이끌고 있어서 한국의학의 이론적 기초를 이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醫書習讀官과 內經研究

醫書의 習讀은 세종 때부터 권장되어 왔는데, 세조 2년에 習讀廳에 醫書習讀官 15人을 두어 의학교육을 권장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士族出身으로 젊고 총명한 관리를 뽑아 醫書를 습독케한 제도이다. 이러한 조치는 의학이론에 대한 연구를 활발하게 해주는 작용을 해주어 內經연구를 촉진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 5. 조선후기의 內經研究

朝鮮 前期에 한껏 高揚된 醫學의 發展은 『東醫寶鑑』에 의해 결실맺게 된다. 『東醫寶鑑』은 許浚이 14년간의 각고 노력 끝에 1610년에 만들어낸 綜合醫書이다. 그 내용은 人體內部, 人體外部, 온갖 疾病, 藥物, 鍼灸 등 內容들을 總網羅하고 있다. 이 책은 20여 차례나 中國, 日本 等地에서 간행될 만큼 好評을 받았다. 現代 韓國의 醫學도 이 책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意義가 깊다.

『東醫寶鑑』은 以後 韓國醫學의 모습을 바꾸어 주었다. 臨床醫學의 飛躍的 發展이라고 표현되는 이러한 傾向은 이후 계속해서 이어졌다. 『醫門寶鑑』, 『濟衆新編』, 『方藥合編』 등 『東醫寶鑑』의 亞流 書籍들의 出版과 『攷事撮要』, 『攷事新書』 등 本草書적들의 出版, 『鍼灸經驗方』, 『鍼灸要訣』 등 鍼灸學書籍들의 出刊등은 이 시대 臨床醫學이 理論과 實際 모두의 側面에서 발전되어 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준다. 특히 許任의 『鍼灸經驗方』에 보이는 補瀉法과 舍岩道人的 舍岩鍼法등은 『東醫寶鑑』에서 고양된 韓國의 醫學에 대한 自負心이 한껏 發揮되었다는 點에서 意義가 깊다. 紅疫에 관한 治療法을 담고 있는 小

兒科에 관한 書籍들이 다수 출판된 것과 外科學이 前時代보다 많이 發展하게 되었다는 것도 이 시기 醫學에 있어서 중요한 點이다. 또한 學問的으로 實事求是를 主張하는 實學의 影響을 깊이 받은 것으로 생각되는 經驗方類書籍들의 出刊과 性理學的 世界觀과 關係가 있는 運氣醫學의 發興은 이 時期 醫學의 多樣한 學問性을 알 수 있게 해준다. .

이러한 발전의 내재적 논리는 기왕의 內經研究가 바탕이 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內經의 이론은 항상 그 근저가 되는 논리로서 사용되었기에 학술적으로 탄탄한 체계를 가지게 된 것이다.

## 6. 李奎峻의 扶陽學說과 內經

현재 한국의 한의학은 다양한 학설들로 학술적 분위기가 만개하고 있다. 학술적 근거가 부족한 것들도 많이 있지만, 역사적으로 뿌리가 깊어 점차 큰 세력을 형성해나가면서 발전하는 학설들도 많이 있다. 이 가운데 素問學會를 중심으로 이어가고 있는 扶陽學說은 한국의 한의학을 수놓고 있는 정통학설이라고 할 것이다. 扶陽學說은 일제시대에 활동한 儒醫인 李奎峻에 의해 제기된 한국의 한의학을 대표하는 학설들 가운데 하나이다. 그는 경상북도 연일군 동해면 임곡리에서 출생하여 어려서부터 성리학을 연구하여 제자백가에 달통하였는데, 宋儒들의 六經注疏를 비판하는 입장에서 『毛詩』, 『尙書』, 『周易』, 『春秋』, 『周禮』, 『儀禮』 등과 『大學』, 『中庸』, 『禮運』, 『典禮』, 『論語』 『孝經』 『唐宋古詩』, 『後千字』 등을 刪正하였다. 그의 학문은 程朱의 注疏를 무비판적으로 신봉하지 않고 漢唐의 儒說로 돌아가고자 하는 복고적 사상으로, 옛 것을 찾아서 새 것을 마련한다는 혁신적 사상의 원리를 근간으로 하는 復古創新의 사상인 것이었다. 그는 서양의 曆法을 논한 『浦上奇聞』, 당과의 시비를 논한 『石谷心書』, 數學을 논한 『九章要訣』, 『神教術世文』, 『石谷散稿』 등의 저술도 하였는데, 이것은 그가 “復古” 뿐 아니라 “創新” 에도 힘썼음을 말한다.

그는 儒學的 원리를 의학이론에 적용시켜 독창적인

扶陽學說을 창립하였다. 그의 저술 『黃帝素問節要』(일명, 『素問大要』)와 『醫鑑重磨』에는 그의 醫論들과 處方들로 가득차 있다. 그의 주장은 扶陽論, 氣血論, 腎有兩藏辨 등의 세 논문에 집약되어 있다. 扶陽論은 陽氣를 기르는 것이 인체의 생명활동을 영위하는데 기초라는 주장이 근간이다. 그는 火가 氣가 되어 知覺運動, 呼吸, 笑語 등 일체의 활동을 비롯하여 皮膚를 윤택하게 하고 痲汗을 방어하는 등의 생리작용을 하여 日新을 주류하지 않는 곳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여기에서 그는 相火에 대해서, 心은 君火라 하고 腎을 相火라 하지만 별개의 火가 아니라 君火가 水에서 행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나이가 들에 따라 陽氣가 사그라들고 陰氣가 점차 자라나 결국에는 죽게 된다고 주장하였는데, 이것은 소아가 겨울에 다리를 드러내도 추위를 모르지만 노인은 여름에도 무릎이 시리다는 사실에서 증험된다고 하였다. 즉 이것이 인체에 陽氣가 많으면 건강하게 되는 증거라는 것이다. 氣血論에서는 생명의 근원은 火라고 정의내린 후, 음양이 相交하고 기혈이 소통되면 건강을 얻고 한기가 침범하면 질병을 얻게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러한 질병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眞火를 잘 보전하는 扶陽降陰의 治方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腎有兩藏辨에서는 『難經』의 “左腎水右命門火說”을 반박하고 腎은 北方水이므로 腎火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君火를 제외한 다른 네 장기가 모두 相火를 얻어 그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腎도 또한, “水得火則精生, 水勝火則精亡” 한다고 하여, 火로서 병을 발생케 한다는 종래의 설을 논박하고 있다.

그는 치료의 대원칙을 “清上通中溫下”로 정리하고 있는데, 이것은 몸을 관통하고 있는 生氣를 다스리기 위해 上中下를 함께 고르게 하는 것이 꼭 필요한 것으로 꼽고 있기 때문이다. 陽氣가 위로 올라가고 탁한 陰氣가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 陰陽의 性情이므로 清上通中溫下의 治法은 양기가 제대로 올라가게 해주는 扶陽의 기본적 처방인 것이다. 그는 이를 통해 心身이 완전히 하나되는 “陰平陽秘”가 될 것이라고 믿었다.

## 7. 해방 후 韓醫科大學에서의 內經研究

해방 후 1948년 東洋大學館이라는 韓醫科大學이 설립되면서 內經研究는 教育과 研究에 있어서 體系와 系統이 성립되게 되었다. 특히, 1964년 6년제 韓醫科大學으로 學制가 改編되고, 1965년 東洋大學館의 後身인 東洋醫藥大學이 慶熙大學校로 合併되면서 韓醫科大學의 教育은 體系性을 確保받게 되었다.

더욱이 基礎學教室에 文獻을 研究하는 原典醫史學教室이 設立되고 洪元植 教授가 主任教授가 되면서 內經研究는 拍車를 가하기 시작하였다. 韓醫學의 古典을 專門으로 研究하고 教育하는 原典醫史學教室이 만들어짐에 따라 內經에 대한 研究는 體系性을 確保받게 된 것이다. 특히, 洪元植의 『精校『黃帝內經』素問』과 『精校『黃帝內經』靈樞』는 현재에도 韓國에서 內經研究의 典範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외에도 『『黃帝內經』素問解釋』, 『『黃帝內經』靈樞解釋』 등의 저술이 있다.

內經관련 저술과 번역으로서 朴贊國의 『懸吐『黃帝內經』講義』, 『『黃帝內經』素問註釋』, 尹暢烈의 『『黃帝內經』素問 王冰注』, 김달호의 『황제내경 소문』, 『주해보주 황제내경 영추』, 김규열의 『황제내경소문교주회수』, 이경우의 『황제내경 영추』, 백유상, 정창현의 『황제내경 소문』, 『황제내경 영추』(만화로 읽는 중국전통문화총서) 등이 있다.

현재 한국의 11개 한의과대학에는 原典學 혹은 原典醫史學教室이 개설되어 한의학 고전을 연구하고 있으며, 연구 테마 가운데 『『黃帝內經』』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공동교과서를 완성하여 교재로 활용하여 標準화된 內經教育에 萬全을 기하고 있다.

## 8. 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에서의 『黃帝內經』 연구의 역사는 뿌리가 깊다.

삼국시대부터 이 책은 교육기관에서 주 텍스트로 활용되었고 연구도 활발하였다. 특히 의학교육기관의 설립 등으로 이것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도교의 영향,

의료제도상의 의박사 등이 그러한 방증 증거이다.

고려시대로 접어들어 의사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黃帝內經』은 중요한 연구서로 자리잡게 된다. 특히, 儒學이 국가적으로 채택됨에 따라 儒醫들이 활동하면서 이 책은 중요한 經典으로 연구되게 된다.

조선시대에 이르게 되면 『黃帝內經』은 의학계의 중심에 있는 의서가 된다. 세종시대에 나오는 의학취재 과목안에 이 책이 포함되어 있고 이 시기에 간행된 『醫方類聚』, 『鄉藥集成方』 등 의서에 이 책이 많이 인용되어 전체적 이론의 바탕이 되고 있다.

조선후기에 이르면 한국의학의 경전인 『東醫寶鑑』이 나오게 됨에 따라 『黃帝內經』은 醫家들 사이에 중요 경전으로 인식되게 된다. 특히, 일제시대에 활동한 李奎峻은 이 책을 扶陽論이라는 학설을 바탕으로 연구하여 독창적인 醫論을 만들어내기도 하였다.

해방 후 한의과대학에 原典學敎室이 만들어지면서 『黃帝內經』 연구는 활기를 띠게 된다. 원전학교실에 서는 이 책과 관련된 교재와 연구서, 논문을 다수 만들어내고 있어 이 계통의 연구를 활성화하고 있다.

## 9. 참고문헌

1. 嚴世堯 主編, 『中國醫籍通考』 第一卷, 上海中醫學院出版社, 1992.
2. 周谷城, 『中醫學三百題』, 上海古籍出版社, 1989.
3. 丹波元胤 編, 中國醫籍考, 人民衛生出版社, 1983.
4. 石田秀實 編, 『素問次注集疏』 一, 黃帝內經研究叢書 第二卷, 오리엔트出版社, 1987.
5. 石田秀實 編, 『素問次注集疏』 二, 黃帝內經研究叢書 第三卷, 오리엔트出版社, 1987.
6. 石田秀實 編, 『素問次注集疏』 三, 黃帝內經研究叢書 第四卷, 오리엔트出版社, 1987.
7. 『漢醫學大辭典 醫史文獻編』, 漢醫學大辭典編纂委員會, 1985.
8. 金重漢, 『왕빙에 대한 연구 - 왕빙의 소문에 대한 주석 및 편제의 개편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1980.
9. 龍伯堅, 『黃帝內經概論』, 논장, 1988.
10. 盧台俊 譯解, 『新譯道德經』, 弘新新書, 1989.
11. 맹웅재 외, 『韓醫學通史』, 대성의학사, 2006
12. 손홍렬, 『한국중세의 의료제도연구』, 수서원, 1988.
13. 張其成 主編, 『易學大辭典』, 華夏出版社, 1992.
14. 李戎 編, 『中醫難字字典』, 四川科學技術出版社, 1990.
15. 武長春 張登本 主編, 『內經詞典』, 人民衛生出版社, 1990.